

##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최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 시계열 통계만으로는 연령별 전이 경로와 코호트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체 청년 인구(외연적/확산도)와 NEET 인구(내재적/심화도)라는 이원적 분석 틀을 적용하여 등고선 도표를 통해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특히 팬데믹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단순한 고용률 제고 등의 총량 관리를 넘어,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밀착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함.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청년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쉬었음'의 시공간적 확산 경로와 세대별 고착화 특성을 규명하는 외연적·내재적 이원 동태 분석 필요

- 정태적 통계의 한계 극복: 기존의 단면(Cross-sectional) 통계는 특정 시점의 상태만을 보여주어, 생애주기에 따른 상태 변화나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고유한 경험(Cohort Effect)을 동태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정책 타겟의 정밀화: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는 접근을 넘어, ① 연령(Age, 생애주기적 요인), ② 시기(Period, 경기적 요인), ③ 세대(Cohort, 구조적 요인) 중 어떤 기제가 '쉬었음'을 유발하는지 분해·규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외연과 내재의 입체적 분석: 노동시장 활력 저하를 보여주는 '사회적 확산도(Extensive, 전체 대비 규모)'와 비경제활동의 질적 악화를 의미하는 '내재적 심화도(Intensive, NEET 대비 성격)'를 병행 분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함

표 1 | '쉬었음'의 입체적 규명을 위한 이원적(외연·내재) 분석 틀

구분	청년 인구 대비 특정 상태(쉬었음 등) 전체청년인구	NEET 인구 대비 특정 상태(쉬었음 등) NEET인구
지표 정의		
분석 관점	외연적 관점	내재적 관점
해석 차원	사회적 확산도 (노동시장 전체로의 파급력)	내재적 심화도 (비경제활동 상태의 질적 악화)
규명 초점	• 사회적 총량 및 연령별 전이 경로 • 노동시장 진입 지체 수준	• 집단 내 고착화 여부 • 구직 의욕 상실 및 단절의 심도
데이터 의미	[발생률 및 확산] 노동시장 이행 지체의 '사회적 총량'과 연령별 '확산 경로' 파악	[심화도 및 성격] 비경제활동 집단 내부의 '고착화(만성)' 여부와 '질적 구성' 파악
정책 목표	[예방 및 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및 총량 관리	[회복 및 밀착 지원] 유형별 원인 진단 및 맞춤형 재활

**분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2003~2025)」**

- 이원적 분석 대상 설정: 분석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① 전체 청년 인구(외연적 확산도)와 ② NEET 인구(내재적 심화도)로 이원화하여 비교 분석함. 이를 통해 '쉬었음' 현상의 양적 규모와 질적 고착화 수준을 입체적으로 규명함
- 동태적 분석 기법 적용: 연도와 연령의 변화에 따른 '쉬었음' 상태의 밀도 변화 및 전이 과정을 렉시스 다이어그램(Lexis Diagram)에 기반한 등고선 도표(Contour Plot)로 시각화함
- 다차원적 시각화의 의의: X축(연도)과 Y축(연령)의 평면적 교차를 통해 ① 특정 시점의 충격(Period Effect)과 ② 생애주기적 특성(Age Effect)을 파악함과 동시에, ③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세대적 상흔(Cohort Effect)의 흐름까지 포착하여 시공간적 확산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동태적 구조 변화 규명: 최근 연구(한국은행, 2026)가 개인·가구 특성 등 미시적 결정요인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 브리핑은 거시적·동태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함
- APC 효과의 시각적 분해: 단순 시계열로는 포착하기 힘든 연령-시기-세대(APC) 효과의 복합적 작용을 시각적으로 분해하여 '쉬었음'의 동태적 확산 경로를 제시함
- 정밀 타겟팅 근거 마련: 총량 지표 이면에 숨겨진 특정 세대의 상흔 효과(Scarring Effect)와 연령대별 고착화(Hysteresis)를 실증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함

참고문헌  
윤진영, 김민정, 오삼일(2026).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 (BOK 이슈노트 제2026-3호). 한국은행

**02 청년층 '쉬었음'의 시공간적 확산: 외연적 확대와 내재적 심화**

**전체 청년층으로의 외연적 확산과 NEET 집단 내 내재적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팬데믹 이후 '쉬었음'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임**

- 외연적 확산(양적 확대): 과거 20대 초반에 국한되었던 '쉬었음'의 고비중 영역이 최근 20대 후반까지 넓게 퍼지는 우상향 전이(Spillover) 패턴을 보임. 이는 노동시장 진입 지체가 누적되면서 '쉬었음'이 특정 취약 계층의 문제를 넘어 청년기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내재적 심화(질적 악화): NEET 집단 분석 결과, 10대 후반의 초기 고립(Red Zone)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점은 20대 후반(25~29세)까지 유지되는 높은 '쉬었음' 비중(40~50% 수준, Green Zone)임. 이는 과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준비 등으로 이행하며 '쉬었음' 비중이 낮아지던(Blue Zone) 패턴이 희석되고,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시점 충격과 세대적 상흔의 결합으로 인해, '쉬었음' 상태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세대 간 전이되는 '부정적 관성'이 관찰됨**

- 시점 및 코호트 효과: 2020년 팬데믹 충격 이후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후 현재까지 그 수준이 유지되는 하방 경직성이 관찰됨
- 상흔 효과의 실증: 팬데믹 진입기 코호트(1990년대 후반생)가 29세에 도달해서도 '쉬었음' 비중을 유지하는 세대적 상흔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됨. 이는 최근 세대(2000년대생)의 초기 고립 경향과 맞물려 장기적인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위험 요인임

**외연적 확대와 내재적 심화의 결합은 청년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고착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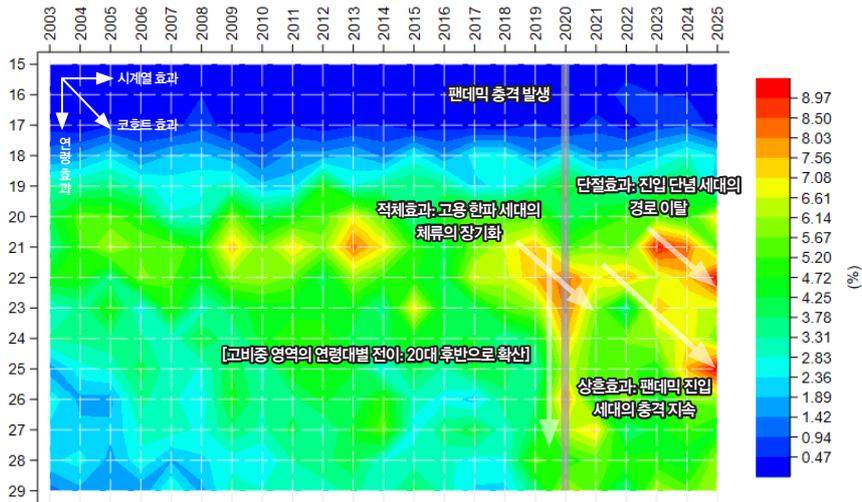
- 질적 고착화의 심화: 전체 청년층 내 '쉬었음'의 양적 확산과 더불어, NEET 집단 내부에서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구직 의욕을 회복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질적 고착화 현상이 뚜렷함
- 세대별 대응의 시급성: 특히 팬데믹 충격을 받은 특정 코호트가 29세에 도달해서도 '쉬었음' 비중을 유지하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적 요인을 넘어선 상흔 효과로 판단되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밀한 정책 개입이 요구됨

표 2 | 전체 청년 인구 대비 '쉬었음'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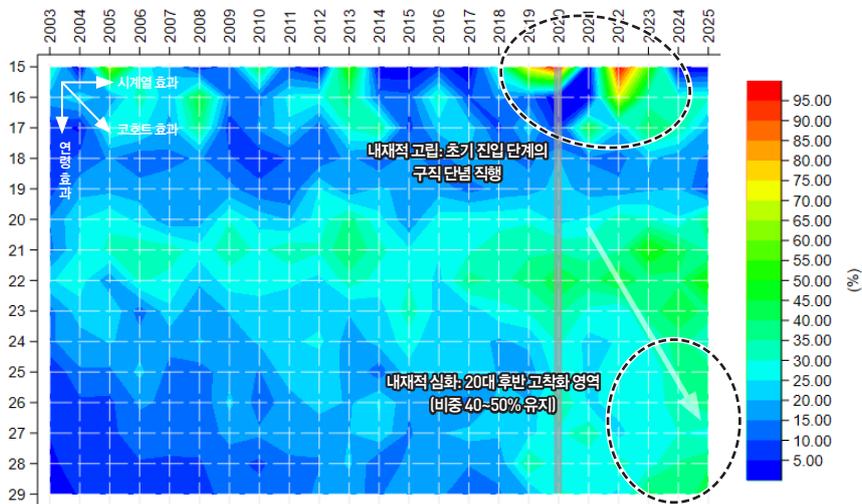
구분	주요 분석 내용 및 시사점
시계열 효과 (Period Effect)	“특정 시점 이후 급증 및 고착화” •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비중이 2020년(팬데믹)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됨 • 최근(2023~2025)에는 이러한 증가세가 일시적 충격을 넘어 추세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임

| 표 계속 |

연령 효과 (Age Effect)	<p>“20대 초반 → 30대 초반으로의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엔 20~23세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25~29세 및 30대 초반까지 확산되는 ‘우상향 패턴’이 뚜렷함</li> <li>•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적체되는 인원이 전 연령대로 확산됨을 시사함</li> </ul>
코호트 효과 (Cohort Effect)	<p>“팬데믹 세대의 상흔과 부정적 관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 후반생]: 진입기 충격이 20대 후반까지 이어지는 상흔 효과가 관찰됨</li> <li>• [2000년대생]: 초기 진입기부터 고비용의 ‘쉬었음’을 선택하며 이행 단계를 건너뛰는 경향이 강함</li> </ul>



| 그림 1 | 외연적 확산: 청년층 ‘쉬었음’의 연령대별 전이 및 사회적 총량 확대 추이



| 그림 2 | 내재적 심화: NEET 집단 내 구직 단념 고착화 및 초기 진입 단계의 고립 실태

**03 시사점: 3단계 정책 목표집단별 맞춤형 해법**

- 본 브리프 동태적 시공간 분석 결과, 청년 ‘쉬었음’ 문제는 단일한 원인이 아닌 세대·연령·시기 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을 띠며, 이에 정책 타겟을 생애주기별 지배 요인에 따라 ① 초기 진입 실패군, ② 구직 병목군, ③ 장기 고착군으로 세분화하고, 분석 결과(외연/내재)에 근거한 차별화된 정책 믹스(Policy Mix)를 제안함<sup>1)</sup>

1) 여기서 ‘취업준비’ 상태를 함께 진단하는 이유는, 비경제활동 인구 내에서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상호 밀접한 상충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임. ‘쉬었음’은 독립적 현상이 아니라, 필수 이행 단계인 취업준비 과정의 ①소명(초기), ②병목(중기), ③실패(장기)가 드러난 결과이므로, 선행 요인인 ‘취업준비’의 상태를 역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였음

**목표집단 A: [초기 진입 실패군] (19~23세) → “복지+고용의 선제적 융합”**

- (진단: 내재적 고립의 코호트 효과) 2000년대생(최근 세대)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취업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쉬었음’으로 진입하는 내재적 고립(Intensive Isolation) 성향이 뚜렷함(NEET 내 90% 상회). 이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 진로 적응도 부족과 심리적 위축이 결합된 ‘새로운 진입 패턴’의 등장임
- (해법: 찾아가는 연결 및 심리적 안전망) 기존의 ‘찾아오는 고용서비스’로는 이들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비구직 청년의 생활 반경으로 접근을 넓히고, 직업훈련 이전에 진로 집단상담과 심리회복을 선행하는 복지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

표 3 | 초기 진입 실패군(A): 이행 경로의 생략 진단 및 선제적 복지 개입 방안

구분	현상 및 진단	정책 방향
쉬었음	[이행 단계의 생략과 직행] • (직행의 의미) 일반적인 '교육→취업준비→취업'의 순차적 이행 경로가 작동하지 않음. • 중간 완충지대인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경제활동으로 진입하는 경향 심화	[찾아가는 연결] • 고용센터 방문 대기 전략 탈피 → 온라인 상담소, 청년 공간 등 접점 다변화 • 은둔형 외톨이 예방 차원의 선제적 복지 개입
취업준비	[탐색 경험의 부재] • (진단) 데이타상 20대 초반의 '취업준비(Blue Zone)' 영역이 미형성됨. • 진로 탐색이나 직무 준비 경험 자체가 전무한 '경험의 공백' 상태	[심리적 안전망 구축] • 직무 훈련 전(前) 단계로 '진로 집단상담' 의무화 •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단기 직장체험 제공

**목표집단 B: [구직 병목군] (24~28세) → “이탈 방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진단: 외연적 확산의 연령 효과) 생애주기상 ‘취업준비’ 밀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자, 구직 실패 누적으로 인해 ‘쉬었음’ 영역이 20대 후반으로 넓게 퍼지는 위상향 전이가 발생하는 임계점임. 고학력화와 눈높이 미스매치로 인한 마찰적 체류가 비자발적 이탈로 전환되는 단계
- (해법: 경험 매칭을 통한 이탈 방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함. 책상 위 스펙 대신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직무 효능감을 높이고, 장기 구직자의 번아웃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를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함

표 4 | 구직 병목군(B): 병목 및 확산 위험 진단과 이탈 방지 전략

구분	현상 및 진단	정책 방향
쉬었음	[외연적 전이 위험] • (거시 관점) 취업준비 집중 구간 인근으로 '쉬었음'(Red Zone) 영역이 확산됨 • 구직 실패 반복에 따른 피로감으로 '비자발적 쉬었음'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분기점	[이탈 방지] • 구직 활동 6개월 이상 장기화 시 '환기' 프로그램 제공 • 구직 번아웃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
취업준비	[과밀과 병목 현상] • (진단) 청년 중 '취업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과밀 구간 • 스펙은 갖췄으나 미스매치로 인해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적체됨	[경험 매칭] • 정량적 스펙 경쟁을 '현장 직무 경험'으로 전환 유도 • 채용 부담 없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을 통해 중소기업 직무 수용성 제고

**목표집단 C: [장기 고착군] (29세 이상) → “수요 견인 및 상흔 치유”**

- (진단: 상흔 효과와 질적 고착화) 팬데믹 충격을 받은 세대가 29세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 효과가 확인된 그룹임. 특히 NEET 내 비중이 40~50% 수준(Green Zone)으로 유지되며, 구직 의욕 자체가 저하된 질적 고착화 단계로 판단됨
- (해법: 채용 유인 강화 및 경력 사다리) 공급 측면(교육/상담)의 개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임.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고용촉진장려금 등)를 제공하여 수요 측면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단순 소득보전이 아닌 ‘경력 형성형’ 디딤돌로 재구조화해야 함

표 5 | 장기 고착군(C): 상흔 효과(Scarring) 진단 및 수요 견인형 처방

구분	현상 및 진단	정책 방향
쉬었음	[상흔 효과와 고착화] • (시계열/세대 효과) 2020년 전후 충격이 해소되지 않고 29세 이후까지 잔존(Green Zone) •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낙인 효과로 기업 채용 기피 심화	[수요 견인] • 단순 상담의 효용 저하 단계 → 기업 대상 인센티브 필수 • 장기 미취업 청년 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및 요건 완화
취업준비	[구직 효능감 상실] • (내재적 심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 비중은 급감하고, 다시 '쉬었음' 비중이 상승(U자형 회귀) • 기존 고용서비스(알선)가 작동하지 않는 만성적 정체 상태	[경력 사다리] • 눈높이를 낮춰 진입하되, 추후 이동 가능한 '경력개발 경로' 제시 •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를 민간 이직을 위한 '경력 형성형'으로 전면 개편